

# 음악으로 하나 되는 'Asia'

## '아시아전통오케스트라' 9월 5일 광주문예회관 180여명 참여 11개국 79개 전통악기 협연 무대

한국의 가야금과 피리, 중국의 일후, 미얀마의 사웅, 인도네시아의 감방, 베트남의 단담삼락..

아시아 각국의 전통악기들로만 구성된 '아시아전통오케스트라'는 '음악으로 하나되는 아시아'를 꿈꾼다. 오는 2015년 개관하는 아시아문화전당의 핵심 콘텐츠 중 하나인 아시아전통오케스트라는 지난 2009년 열린 한·아세안 특별 정상 회의를 계기로 정식 출범했다. 오케스트라는 한국, 캄보디아, 라오스,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11개국 52종 79개 전통악기로 구성돼 있다.

아시아전통오케스트라가 오는 9월5일 오후 8시 광주문예회관 대극장에서 공연을 갖는다. 6일 광주에서 열리는 한국-동남아시아 문화장관 회의의 기념 무대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아시아문화개발원이 주최하는 이번 공연에는 오케스트라 단원 80명(한국 30명)과 각국의 협연가수, 합창단 등 180여명

이 참여한다.

공연 레퍼토리는 아세안 10개국의 민요를 바탕으로 창작한 10곡으로 구성돼 있다. 각 나라의 대표 작곡가가 자국의 민요를 바탕으로 창작곡을 만들었고, 각국의 가수들이 오케스트라 협연 무대를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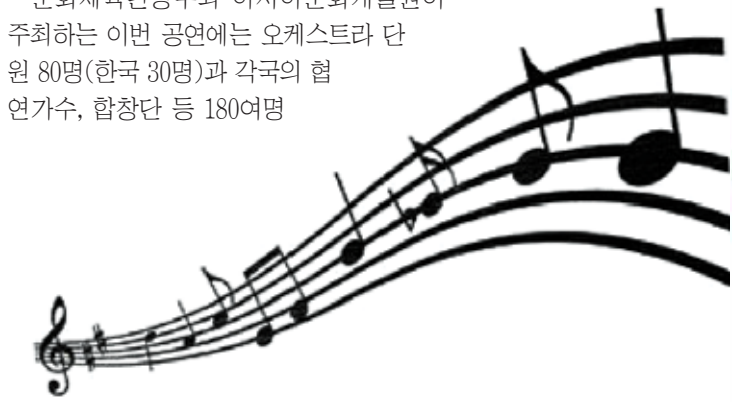
김성국씨가 지휘봉을 잡는 공연의 시작은 최상화씨가 '진도 아리랑'과 전라도 무속구음을 모티브로 '빛고를 아리랑'을 알린다. 광주시립합창단이 협연하며 소리꾼 박애리씨가 함께 호흡을 맞춘다.

이어 캄보디아의 '칸생 크라함'(빨간 손수건), 다섯개의 민요를 바탕으로 작곡한 미얀마의 '키렛 프데이', 사랑하는 남녀의 이야기

를 그린 베트남의 '판타지 베트남', 전통 춤양식을 바탕으로 만든 브루나이의 '자핀 레일라 썸바', 싱가포르 국민들의 애창곡의 주 멜로디를 차용한 '싱가푸라', 라오스의 전설 '파카와 시다의 이야기'에서 영감을 얻은 '탑수 아파단' 등이 연주된다. 협연자로는 시냇노(캄보디아), 사 니니 툴(미얀마), 진넬 비하그 툴덴(필리핀), 카이롤 아프완 로히잔(싱가포르)씨 등이 참여한다.

피날레곡은 박범훈곡 '사랑해요 아세안'이다.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의 한국어 가사를 아시아 각 나라의 언어로 번역해 구성한 곡으로 한국의 휘모리 장단을 바탕으로 각국의 민요 선율을 접목시켰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피아노 황제 리스트와 가을로~

### 전남대, 내달 3일 예노 안도 무료 초청공연

'피아노의 황제, 리스트를 만나다.' 헝가리 국립리스트음악원 교수로 재직 중인 피아니스트 예노 안도가 광주에서 헝가리가 낳은 세계적인 음악가 리스트 음악을 선사한다.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열리는 제3회 한국리스트페스티벌에 참여한 그는 9월 3일 오후 7시30분 전남대 예술대 예향홀에서 광주 클래식 애호가들을 만난다. 광주 공연은 서울과 달리 전석 초대로 진행된다.

레퍼토리는 '장송', '오베르망의 계곡', '소나타 나단조'다. 또 바그너의 '탄호이저' 중 '순례자의 합창', 베르디의 '리골레토'를 리스트가 연주회용으로 편곡한 곡들을 들려준다.

시드니 콩쿠르트 등 많은 콩쿠르에서 일

상한 그는 바르톡상 등을 수상했으며 1974년부터 리스트음악원 교수로 재직중이다. 유리 시모노프 등 세계적인 지휘자와 협연무대를 가졌으며 모차르트와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와 협주곡 전곡 녹음 등 다양한 음반을 발매했다. 문의 062-530-012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암 투병 환우들에 '힐링 갤러리'

### 한국로슈, 9월3일 DJ센터서 워크숍

유방암 환우들을 위한 미술 치유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스위스에 본사를 둔 다국적 제약 기업 (주)한국로슈(대표이사 스벤 피터슨)는 오는 9월3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힐링 갤러리 시즌 3-멘토와 함께하는 유방암 환우 힐링 워크숍'을 개최한다.

1부 아트 갤러리(오전9시30분)에서는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화가 박보순씨가 미술을 통한 아트 테라피 워크숍을 진행한다.

2부 멘토링 갤러리(오후 1시30분)에서

는 3년의 유방암 발병으로 20년간 투병한 박씨가 자신의 경험을 들려준다. 또 '마리끌레르' 디렉터를 거쳐 현재 '마리끌레르 패션쇼' 편집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이윤수 패션 에디터가 유방암 환우들을 위한 패션 스타일링 팁을 전한다.

행사에 필요한 재료 등을 모두 제공하며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1부 행사는 행사 사무국(02-6915-3048)으로 신청하면 되고, 2부 행사는 사전 등록없이 유방암 환우들 가족, 지인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여름 지나간 야외서 연극 한편

### 광주시립극단 '전우치' 30~31일 금남공원



제대로 된 음향과 조명을 갖춘 정식 공연장에서 작품을 감상하는 것도 좋지만 야외 공연도 매력적이다. 올 봄 열린 광주영화연극제가 '발견'한 광주공연 무대는 야외 공연의 색다른 즐거움을 느끼게 해준다.

광주시립극단이 광주 금남공원에서 공연 중인 '판타지 액션 연극 전우치'는 작품 완성도면에서는 다소 아쉽지만 야외공연의 재미를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전우치'는 금남공원에서 열렸던 음악회 등 기존의 공연 행사가 사용하던 고정 무대 반대편에 무대를 만들고 계단 등 공간 곳곳을 활용, 관객들에게 보는 즐거움을 선사했다. 또 연기와 노래, 춤, 마술, 액션 등 다양한 장르가 어우러져 관객들이 작품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한 점도 눈에 띄었다. 가족 단위 관람객들에게 걸맞은 공연이다.

'전우치'는 도사가 되기 위해 신비한 검을 찾아 나선 전우치가 탐관오리를 물리치고,

악자를 돕는 고전 소설의 모티브를 그대로 차용했다. 여기에 현재 대한민국 상황을 빗댄 다양한 상황들을 엮었지만 작위적인 느낌을 뺀 작품 스토리는 다소 아쉽다.

아크로바틱, 무용, 액션 등 트레이닝을 받은 배우들의 움직임도 좋고, 주제곡 '전우치'(오영목 작곡)는 공연이 끝난 후에도 계속 흥얼거리게 된다.

배우들이 직접 배워 진행한 마술의 경우 극의 재미를 더하기는 했지만, 대형 도구를 활용한 일부 마술의 경우 기대감을 한껏 높인 상태에서 호지부지 마무리, 극의 흐름을 오히려 차단한 점은 아쉬웠다.

지금까지 4차례 공연에 800여명이 다녀갔으며 30일, 31일(오후 8시)두차례 더 관객들을 만난다. 본 공연에 앞서 한국 변검과 마술 공연도 열린다. 비가 올 경우 공연은 취소된다. 문의 062-511-2759.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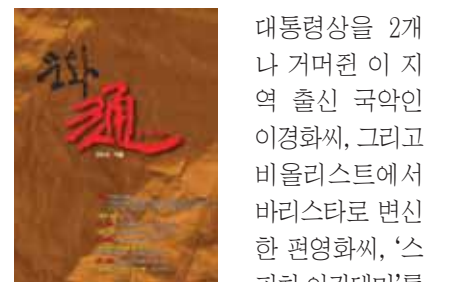
## 문화통& Asia 가을호 나왔다

인터넷신문 문화통(대표 지형원)이 발행하는 문화통& Asia 가을호가 나왔다.

이번호는 특집으로 광주·전남지역 언론의 태자리로 통하는 전일빌딩(1968년 신축)의 반백년을 조명했다. 광주일보, 전일방송에서 활동했던 전직 언론인들의 생생한 증언과 건물 설계자인 조동희씨의 육성을 담았다. 5월 광주항쟁과 전일빌딩, 전일다방, 전일도서관 이야기 등 지역민들의 추억담도 실었다.

발굴기사로는 1950년대 광주지역에서 발간된 시동인지 '영도(霧度)를 다뤘다. 영도는 박봉우, 박성룡, 김정옥 등 한국문단에 족적을 남긴 문인들의 '글마당'이었다.

화제 코너에서는 지리산 천왕봉을 무려 700차례 오른 의료인 장형석 박사, 한 해



대통령상을 2개나 거머쥔 이 지역 출신 국악인 이경화씨, 그리고 비올리스트에서 바리스타로 변신한 편영화씨, '스피치 아카데미'를

오픈한 방송인 박

동찬씨의 인생 이야기가 실렸다.

이밖에 광주의 대표적인 국제행사인 2013광주디자인비엔날레를 알차게 관람할 수 있는 가이드와 '빛골 아리랑'을 주제로 펼쳐지는 제2회 광주세계 아리랑축전 등 행사를 조명했다.

/이보람 boram@kwangju.co.kr

since 1982

## 창업 31주년 국제보청기

www.kjhr.com

- ✓ 첨단 디지털 기술로 필요한 소리만 **똑똑하게 들립니다.**
- ✓ 착용시 아주 작은 사이즈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많은 고객과 상품관리로 **가격이 부담없습니다.**

**디지털 보청기(미국·독일·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

본점 062)227-9940	충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80)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

**서비스표등록증**

상표번호 41-0241299호

**5·18낙지**

# 낙지의 명가 5.18낙지

## 체인점 사장님을 모십니다.

**체인점 문의**

**☎ 061-375-2383**

**HP. 010-6656-0002**

**상표등록 : 41-0241299호**